

< 아트어드바이저 정윤아의 『현대미술 강좌』>

6. 80년대 미술: 차용의 시대

Appropriation: 차용(借用), 전유(專有), 사용(私用), 도용(盜用)

차용이란?

1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서 씬. ≒채용(賃用).

2 <언어> 다른 나라 언어에서 단어, 형태소, 문자나 개별적 표현 따위를 빌려다 씬.

또는 그런 일.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1. 미술에서 나타나는 차용의 배경

(1) 과학적 배경(절대성→상대성/확정성→불확정성)

뉴턴(Isaac Newton)의 역학: 고전역학(Classical Mechanics), 17-19세기

시간과 공간이 절대성을 띄고 있다고 생각, 즉 시간과 공간이 연속체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함.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미래의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결정론적(deterministic) 입장.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의 상대성 이론(Theory of Relativity), 1905

뉴턴역학 이래 물리학의 대전제였던 시간과 공간의 절대성을 부정. 뉴턴역학에서는 질량은 변하지 않는 고유의 상수라 하지만 아인슈타인 역학에서는 질량이란 물체의 운동상태에 따라 변한다고 설명.



양자역학(Quantum Mechanics), 1925년 전성기

뉴턴 역학의 결정론적 입장과 달리 확률론적(probabilistic) 입장. 비록 현재 상태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더라도 미래에 일어나는 사실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하이젠베르크(Werner Heisenberg)의 불확정성의 원리(Uncertainty Principle), 1927

양자역학에 대한 철학적 해석. 원자와 같은 아주 작은 범위에서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 측정은 거의 불가능. 사람의 관찰 또는 측정 행위가 그 대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물리학의 객관주의와 실재론적 전통에 대한 엄청난 반격.

토마스 쿤(Thomas Kuhn)의 과학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1962

과학이 기존 이론에 뒤따라 새로운 발견이 더해져 확장하면서 합리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절 혹은 이전 가설을 반복하는 '패러다임'의 연속으로 봄. 즉, 진리와 지식은 상대적이며, 그것이 나타나는 관계와 가정이란 더 큰 시스템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 모더니즘의 절대주의를 넘어서려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이론적 배경이 되어 줌.

## (2) 수학적 배경(완정성→불완전성)

### 쿠르트 괴델(Kurt Gödel)의 불완전성 정리(Incompleteness Theorem), 1931년

무모순의 수학 시스템도 자신의 무모순성을 증명할 수 없으며, 증명 불가능한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 상대성 이론-시공간의 절대성 부정/불확정성의 원리-객관성 부정/불완전성 정리는 진리의 근거 자체에 대한 강한 의문 제기.

## (3) 언어학적 배경

- 구조주의(Structuralism)

### 페르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일반 언어학 강의(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1916년

'말(word)'이라고 칭하는 언어를 상징기호(sign)들의 관계로 구성된 복잡한 시스템으로 상정. 하나의 기호(sign)인 언어는 기의(시니피에, signifié)와 기표(시니피앙, signifiant) 사이의 관계로 구성. 소쉬르는 말과 그 실제 대상물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고 언어의 의미는 기표와 기의 사이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도출되는 내부적인 문제라고 봄

- 후기구조주의 (Post-Structuralism)

구조주의에서 그림자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는 실제 세계를 완전히 삭제. 기의는 사라지고 기표의 의미는 단순히 다른 기표들과의 관계라는 문제로 표결.

### 롤랑 바르트의 저서 <저자의 죽음(Death of the Author)>, 1967년 발표

"텍스트는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가 원본이 없는 채로 뒤섞여 있으며 서로 부딪치고 있는 다차원의 공간이다. 이 텍스트는 수많은 문화 중심에서 끌어낸 인용문들로 짜진 직물이다."

즉, 텍스트에는 저자가 없으며 특권이 주어진 인물도 없다는 것. 곧 저자의 죽음.

모더니즘의 절대성, 독창성 중시에 대한 반기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

⇨ 이전에 표절로 치부되었던 행위가 이제는 남의 것을 빌리더라도 그것에 정당한 이유와 개념이 있다면 작품으로 인정받는 '차용'으로 불리게 됨.

## 2. 1980년대 미술의 주요 분류

1. 신표현주의(Neo-Expressionism)
2. 낙서화(Graffiti)
3. 네오 지오(Neo-Geo)
4. 재사진(Re-photography)
5. 상품조각(Commodity Sculpture)
6.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Post-modern Feminism)
7. 하위문화(subculture)를 다룬 사진